

〈광복79주년 감사주일〉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심창보 목사

- *송 영 / 찬 양 대
- *영 광 송 / 1장
- *성시교독 / 32.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어.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272장

대표기도 / (1부) 김춘자 권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창세기 41:14~24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바로 앞에 선 요셉”** / 심창보 목사
(Joseph before Pharaoh)

찬 송 / 420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애국가 (1~4절)

*축 도 / 심창보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정인종 목사

찬 송 / 549장, 540장

기 도 / 김상금 권사

성경봉독 / 마태복음 5:1~12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씬 / **“믿는 자의 기준”** / 정인종 목사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심창보 목사

찬 송 / 387장, 430장

성경봉독 / 창세기 41:25~36

말 씬 / **“요셉의 해몽”** / 심창보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사무엘상 강해 / 심창보 목사

인도 / 심창보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8월 1부	2부
박영미 전도사	이상혁 장로	유경순 권사	안내 김춘자 최영종 김정순 최인숙	현금 전갑영 최승태 김영덕B 유경순 이영희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일조	김명순 김성태(김득복) 김춘예 김형문(신승희) 문미경 박영미 연윤희 윤성태(강현주) 임윤지 임진수(정해순) 무명1			
감사헌금	김성태(김득복) 김성학(류윤영) 김순천(연윤희) 김영덕(이영희) 박삼강자(가정) 유진원(유예원) 윤성태(강현주)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유 이상혁(송미숙) 임진수(정해순) 정규식(이석란) 최원용 무명1			
교육헌금	문미경 박주해 윤성태(강현주) 이대기(박선진)			
구역헌금	유초 중교		구제헌금	박삼강자(가정)
선교헌금	김복례(권사자녀) 김순천(연윤희) 김순천(연윤희)(레구2교회) 김홍엽 박삼강자(가정)			

바로 앞에 선 요셉 (창41:14~24)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감옥에서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소개로 바로 왕에게 나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에도 바로에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워 주셨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 정결한 자가 됩시다.

14절에 요셉은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애굽의 왕에게 나아가는데 죄수의 누추한 옷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교회에 가기 전에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로 살아가도록 불러 주셨습니다.

3.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15절의 말씀처럼 바로가 요셉을 향해 꿈을 능히 풀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바로의 인정이 있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비천한 죄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써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불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